

AI센터 규제 빗장 풀린다… 통신 3사, 인프라 경쟁 본격화

AIDC 특별법 2027년 시행
인허가 통합·지방 전력평가 면제

SKT, 2029년까지 5GW 구축
KT, 5년간 1GW·5조 투자
LG U+, 파주 0.2GW 센터 건설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통신 3사의 AI 인프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전력 규제 완화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조달할 자금력과 장기 고객 확보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이 2027년 2월 시행된다.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 기반 조성 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달 9일 한국과학기술사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현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가 기념 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허가 통합 창구 역할을 맡아 관계 부처 협의를 일괄 진행한다. 각 부처가 정해진 기간 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 의무적으로 받

아야 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비수도권에서는 면제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0MW 이상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특례도 적

용된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되면서 구축 기간을 수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에 맞춰 통신 3사의 투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2029년까지 총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영남권과 서남권 등에 구축할 계획이다.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다.

KT는 정부 메가 프로젝트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체 투자로 AI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박윤영 KT 대표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총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5조원을 투입해 데이터센터를 25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구축 지역과 단계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경기 파주에 0.2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평촌메가센터(0.165GW)보다 큰 규모다. 지난 6월 준공한 1동은 기업 고객과 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대규모 투자비는 여전히 부담이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GPU와 대규모 전력·냉각 설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약 7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는 규제 완화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장기 고객 확보와 투자금 조달 능력이 향후 AI 인프라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와 민간 투자 유치가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카카오, '카나나-2'로 온디바이스 AI 승부

허깅페이스에 경량모델 4종 공개
한국어 처리 효율 30% 이상 향상
상업 활용 열어 AI 생태계 확대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 '카나나(Kanana)'의 경량 언어모델(SLM)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온디바이스 AI 경쟁력 강화와 국내 AI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는 28일 글로벌 AI 플랫폼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서 구동 가능한 '카나나-2' 경량 언어모델(SLM) 4종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모델은 ▲Kanana-2-1.3B-base ▲Kanana-2-1.3B-instruct ▲Kanana-2-3B-base ▲Kanana-2-3B-instruct 등이다.

최근 AI 업계에서는 대형 언어모델(LL

M)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개인용 PC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경량 언어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경량 오픈소스 모델 공개를 확대하는 추세다.

카카오는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경량 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카나나 인 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 요약·통화 요약, AI 국민비서 등에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모델은 작은 규모에도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유사 규모의 최신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한국어·영어·지식·수학·코드 등 주요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Kanana-2-1.3B-instruct와 함께 개발한 0.9B급 모델은 대화, 코드, 수

학, 지시이행, 톨 호출 등 실제 서비스 활용 성능에서도 글로벌 모델인 Qwen, Gemin 등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토큰라이저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한국어 처리 효율을 30% 이상 높였으며, 같은 문장을 더 적은 토큰으로 처리해 연산 비용과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온디바이스 환경 최적화를 위해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Sliding Window Attention) 구조도 적용했다. 최대 3만2000토큰 길이의 대화에서도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72.7% 줄이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이번 모델을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한 카나나 오픈 라이선스(Kanana Open License)로 배포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자율주행 일상화, 제도·수용성이 관건

국회서 자율주행 정책 세미나 개최
안전책임·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강조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안전 책임과 서비스 운영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핵심 과제로 꼽혔다. 연태영 의원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과거지 AI 시대, 자율주행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은 국내외 자율주행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은 웨이모와 테슬라 등 민간 기업이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주도하고,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르

게 일상에 접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공공서비스 중심의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2027년까지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드웨어 중심 투자에 비해 데이터와 모델 개발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규 카카오모빌리티 피지컬AI부문 부사장은 자율주행 시대에는 기술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자율주행차는 혼자 달리지만 서비스는 함께 만든다"며 "이용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LX하우시스 뷰프레임 창호.

LX하우시스

녹색상품 '3관왕' 쾌거

LX하우시스의 주요 인테리어 제품이 '2026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 LX하우시스는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28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LX Z:IN(LX지인) 뷰프레임 창호 ▲에디톤 바닥재·벽장재 ▲PF보드 단열재 3개 제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X하우시스의 벽장재와 단열재는 13번째, 바닥재는 12번째, 창호는 11번째로 녹색상품 제품에 각각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 5번째)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를 방문해 루이즈 카를로스 두트라(Luiz Carlos Dutra)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 회장(왼쪽 4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K-뷰티,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중기부,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 협력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K-뷰티 진출·수출 추가 모색에 나섰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와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를 잇따라 방문해 K-뷰티 중소기업의 브라질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라질은 손꼽히는 뷰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K-팝, K-드라마 인기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늘며 새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가진 이점을 K-뷰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 차관은 회원사들이 브라질 화장품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화장품협회(ABIHPEC)와 원료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의 관련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브라질의 천연자원과 우리 기술력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수출규제 대응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미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는 우리 중소 브랜드사들의 플랫폼 입점과 홍보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폐업 후 다시 찾은 노란우산 19만명 육박

6월 말 재가입자 18만8000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의 장정 때문에 재가입하는 인원이 1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앞서 받은 폐업공제금을 통해 제도전에 나서는 등 노란우산이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노란우산 재가입자는 약 1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란우산의 주요 혜택은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및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이다. 가입자들은 부금 납부

기간에는 사업소득 공제를 받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재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은 '3년 미만'이 54.1%,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로 대부분이 가입 후 5년 이내에 공제금을 받았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 월 평균 부금액은 28만원으로 집계됐다. 재가입 후 월 부금액은 30만3000원으로 8% 가량 늘었다.

업종별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숙박·음식업의 재가입률이 약 9%p 높았다.

/김승호 기자